

에너지의 미래 컨퍼런스 개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월2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호에서 <에너지 시장의 미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월10일 발표했다.

<합리적인 에너지믹스-가스시장/셰일가스의 역할>을 주제로 한 행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원전 정책 변화와 새로운 에너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셰일가스(Shale Gas) 시장을 조명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막할 첫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 여건변화와 주요 정책과제(이유수 에경연 실장) ▲에너지믹스에서의 전력 및 원자력의 역할(김창섭 가천대 교수) ▲에너지믹스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의 역할(박창형 한국신재생협회 부회장)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두번째와 마지막 세션에서는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천연가스 시장 영향 (최성수 한국가스공사 책임연구원) ▲동북아 천연가스 시장의 변화(김연규 한양대 교수) ▲셰일가스 개발 계획 및 한국의 시장 참여 전망 (권영식 한국가스공사 자원사업본부장)▲셰일가스 개발이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신윤성 산업연구원 박사)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3/02/13>